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채무ZERO’ 고흥군, 작년 대비 재정여건 7.2% 개선

총자산 3조 491억원...전년 비 2054억원 증가

고흥군이 '채무제로(ZERO)'와 더불어 작년 대비 재정여건 7.2% 개선을 달성했다.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군이 실시한 결산감사 결과, 순자산 3조 280억원, 총부채 260억원을 합친 총자산 3조 491억원으로, 전년대비 2,054억원이 증가해 재정여건 7.2%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박병중 군수 취임 당시 210억 원이었던 채무를 2017년에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제로 고흥'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게 된 것이다.

제출된 결산서에 따르면 세입은 8,310억원, 세출은 5,683억원이며, 이월 1,722억원 및 보조금 집행 잔액 4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858억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29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을 고흥군의회에 제출 했으며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고흥군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편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쓰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4곳 선정

영산도·임자도 등 특별한 섬 여행지로 부상

신안군은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18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4곳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섬 전문가와 관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놀섬, 힐섬, 맛섬, 미지의 섬, 기기 힘든 섬 등 5개 주제로 분류해 선정했다.

신안군은 33개 섬 중 4곳인 놀섬 '임자도', 미지의 섬 '병풍도', 힐 섬 '반월·박지도', 맛 섬 '영산도'가 선정됐다.

놀섬 임자도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명사 30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관해변이 있으며, 해변에서 말을 타보는 해변승마체험과 갯고랑에서 카약체험 등으로 인기가 많다.

미지의 섬 '병풍도'는 깎여놓은 듯 6개 섬(신주도·병풍도·대기섬·소기섬·소악도·진섬)이 연결되어있고, 안좌도와 북교로 연결된 '반월·박지도'는 물이 들고 빠짐에 따라 아름답고 다양한 풍광을 연출하는 섬으로 전남도에서 지정한 '가고싶은 섬'으로도 선정되었다.

맛섬 '영산도'는 2012년부터 국

립공원 '병풍마을'로써 방문객을 하루 5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미리 예약해야 하는 특별한 섬이다.

영산도 청정해역에서 볼 수 있는 해신물은 아주 싱싱하고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으며 산후조리원으로 영산도 미역을 최고로 친다.

신안군은 33섬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신안스마트 투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4개 섬을 인증하고, 여행 노트에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주민참여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구례군은 지난 24일 지리산둘레길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기 주민

참여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여 재생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스튜디오 수업과 현장조사 및 선진사례 답사를 통해 지역의 자원발굴과 문제점을 분석,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주도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순천대 이동희 교수가 진행한 이날 수료식은 1, 2부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1부 과제 최종발표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을 통해 팀별로 작성한 최종 성과물을 발표하였으며, 2부에서는 도시재생대학 7주 과정 중 5주 이상 참석한 40명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였다. 또한, 최종발표회에서 우수 과제를 발표한 청소년문화팀에게는 대상을 문화관광팀에게는 최우수상을 각각 수여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군, '성공귀농·행복귀촌' 지원 사업 연중 추진

귀농·귀촌 상담에서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



보성군은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인을 위한 '성공귀농·행복귀촌'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정착장려금',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귀농인의 성공적인 귀농정착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농업창업으로 최대 3억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7천 5백만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하여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원조건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

상 거주하면서 타산업에 종사했을 경우 교육시간 100시간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착장려금'은 전입 후 3년 이내에 귀농귀촌을 하고,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 지나 정착장려금을 신청하면 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한 후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농가일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은 만18

세 이상 50세 미만 귀농인에게 시설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70%를 지원하며, 농기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그린팜 원정대를 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귀농 투어를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 귀농인 유치에도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군은 지난 24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달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7월중 교육을 실시한다.

귀농귀촌인의 농촌문화 적응 및 정보교류를 위한 농기계, 비료·농약, 딸기·참다래 영농기술과 신진농장 방문, 비즈니스, 마케팅 등 재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귀촌 홈페이지(www.refarm.or.kr) 및 귀농귀촌센터(061-850-2282)로 문의하거나 농축산과(850-538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이 갖추고 있는 역량을 적극 펼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 국악'의 우수성 알리다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제40회 남도국악제 참가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지부장 한희천)가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개최된 제40회 남도국악제에 참가하여 영광 국악의 진정성과 우수성을 알리며 농악과 고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국악협회 전남지회 소속 18개 시·군 지부가 참가하여 농악, 민요, 판소리, 고수, 전통무용 등 기량을 겨루었다.

영광군에서는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가 참가하여 영광지역 대대로 전승되어 온 전통국악을 소재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관객 및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희천 지부장은 "연습과 경연을 통해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악 발전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평소 기량을 갈고 닦아 내던 예는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전통문화가 잊혀져 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광지역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



함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 지원센터

가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층에 100㎡ 규모로 설치된 함평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함평읍 기차리 1071번지 일원(면적 132,000㎡)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잇는 연계 지원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총괄 및 조정하는 총괄 코디네이터와 사무국장 등이 주민역량강화는 물론, 활성화 사업 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는 도시재생 특감을 시작으로 현관식,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위촉, 시설 둘러보기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